

시론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남, 동부권에 미래가 있다

6월13일로 예정돼 있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발전 위한 다양한 정책공약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 중 지역이나 정당에 관계없이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공약들이다. 이러한 공약들은 4차 산업혁명이 가지는 다양한 기술적 요소와 혁신성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러한 공약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 대중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보다는 정치적 이슈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다.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춰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안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다. 불어오는 유행에 따라 일회성 공약을 제시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특히, 1, 2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열악한 산업생태계, 감소하는 인구 등의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은 지역의 향후 100년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전남의 첫 시작점은 동부권이다. 전남 인구의 40% 이상, 지역 총생산(GRDP)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동부권은 전남의 역량과 기회가 집중돼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는 동부권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화학, 제철, 신소재, 조선 등의 중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일자리 구조의 변화, 환경 및 안전에 대한 문제 등을 예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구조의 변화이다. 미국의 볼스테이트대학에서는 일자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저렴한 해외 노동력과 무역 등이 아닌 로봇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최근 없어진 일자리의 88%가 로봇에 의해 대체됐다는 의미로 실제 이러한 변화가 지역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날이 머지 않았다. 실제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독일의 제조업 혁신에서 유래한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인

것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업들도 도입해야 하는 부분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가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최대 8억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 가능 인구를 고려했을 때 약 13%가 실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라지는 일자리가 아닌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지역 기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가이다.

지역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 산업구조의 개편 및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시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에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정책들이 일회성 공약에 머물지 않기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社說

비방 얼룩진 민주당 시·도지사 경선 실망크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전남지사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흑색·비방전으로 얼룩지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주고 있다. 그동안 본보는 예비후보들이 건전한 정책대결을 통해 지방선거의 참의미를 살려나가기 바라는 심정으로 정책선거를 공론화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공개적인 TV토론포럼 정책은 없고 상대방을 향한 날선 공방만 오가는 살기 가득한 풍경을 보면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의 자치수준이 아직 이 정도인가, 아니면 정치라는 영역이 원래 이전투구의 격전장인가 하는 생각에 허탈감마저 든다.

지난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TV토론회는 후보자간 정책 토론보다는 각자 주장만 쏟아내는 '땡탕 토론'으로 전락해 아쉬움이 컸다. 특히 전두환 정권 시절 이용섭 후보의 청와대 근무 경력 등을 놓고 강기정 후보와 이용섭 후보는 토론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등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다. 강 후보는 이 후보를 '전두환 비서'라고 부르며 '당시 실제로 끌어주지 않으면 청와대 근무는 하기 어려웠다'며 '전두환 정권 청와대 근무

사실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격양된 목소리로 "강 후보가 조금하고 초조한 것 같다"며 "전두환을 한번도 만나지 못한 비서가 어디 있다. 직공무원으로 승진해서 재무부장관의 발령으로 간 것이다. 지금까지 차관급 이상을 8번 하면서 로비해서 간 적은 없으며 모두 제 능력으로 간 것이다. 청와대 근무는 구속부상사회에서 이미 검증받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전두환 비서', '가짜사신' 공방 등 죽기 아니면 살기식 헐뜯기와 쫓세우기 논란이 제기되는 등 그야말로 난타전이 점입가경이다. 전남도지사 경선후보 간 대립각도 날카롭기는 마찬가지이다. 1차 경선이 끝난 후 김영록-장만재 양자 대결로 압축되자 '대세론'과 '역전론'을 앞세워 불꽃튀는 폭로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기에 'ARS 지지 호소' 논란이 더해져 혼탁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당초 조용한 경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등 역동적인 경선으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는 하나 품위를 저버린 경선은 결코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민주당과 후보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주문학관 건립추진위' 설치조례 제정 환영

광주문학관 건립을 위한 관련 조례가 광주시의회를 통과해 광주문인들의 오랜 숙원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게 됐다. 김용집 의원이 발의해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해 신속한 건립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광주는 박용철·김현승 시인 등 많은 현대문학인을 배출해왔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 광역시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문학관이 없어 지역 문인들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애초 광주문학관 건립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시작돼 2008년 관련 용역이 추진됐다. '빛고을문학관'이라는 이름으로 동구 운림동에 건립이 추진됐다가 남구 광주공원에서 이후 모 예식장과 호텔건물까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표류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광주문협과 광주전남작가회의 등 법문단차원에서 지역 문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광주시에 청원함으로써 추진동력을 되살리게 되었다.

그 결과 올해 2월 용역이 발주돼 건립 타당성 조사부터 예정부지 조사, 건립 기획 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광주만의 특색 있는 콘셉트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오는 7월 용역이 끝나는 대로 관련 단체, 문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건립에 들어간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완공될 전망이다.

광주문학관은 국비 등 150억원이 투입돼 부지 3천여㎡에 전체 면적 5천여㎡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유품과 문학사, 기획전시 등을 할 전시관을 비롯해 창작실, 체험관, 영상실, 문학교실, 수장고, 사무실 등을 갖춘다.

특히 이번 시의회의 조례제정으로 광주문학관 건립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문학관이 건립되면 지역 문학인의 창작과 교류활동의 중심 역할은 물론 지역 문화자산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될 것이다. 광주문학관 건립추진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지역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번듯한 문학관이 들어서기를 염원한다.

기고



이경숙 서림교회 권사

시끄럽고 어수선한 선거시즌이 도래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후보 TV 토론은 그야말로 지저분한 인신 공격전이었다. 서로의 약점을 들추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상 최대의 진흙탕 싸움이었다.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치켜세우려는 비열한 방법으로 인해 이들의 TV 토론은 초등학생들에게조차도 전혀 모본이 되지 않았다. 과연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흔연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 이런 총성소리는 종 모세를 죽임에서 일으며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예수가 모세의 시체를 묻은 천사들과 함께 모세의 무덤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모세의 무덤

앞에는 이미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사탄은 모세를 죄 짓게 만드는 데 성공하여 무척 기뻐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며 예수의 접근을 막아섰다. 그러나 예수의 영광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에 질세라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예수에게 시비를 걸어서 그를 흥분시켜 복수심을 일으키려 했다.

"모세는 크나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는 내 것이다"

물론 예수는 사탄의 도전을 되받아 정당한 사유로 공격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죄를 지은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여 불평불만을 끊임없이 터뜨리게 한 사탄이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사탄이 40년간 설 세 없이 모세를 괴롭히며 온갖 나쁜 짓을 일삼은 것을 일일이 지적하며 사탄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을 비난하는 방법을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비난은 악한 자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예수는 모든 것을

아름다운 대화

하나님께 맡기며 온유한 자세로 사탄에게 점잖게 맞섰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유다서 9).

그런 뒤 예수는 사탄을 비난하는 대신 모세를 변호하며 말했다.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 가지 잘못을 뉘우쳤으므로 그의 품성에 아무 흠도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그의 이름은 하늘 기록 책에 흐려지지 않고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는 사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던 모세의 시체를 일일 대화법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원수나 반대자와 싸울 때, 보복의 정신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욕하고 비난하는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신ಗೆ 맡겨야 한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사람들은 언쟁을 하면서 거리낌 없이 반대자의 불리한 점을 이용하여 빈정거리고 말장난

을 남발하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본다.

그럼으로써 상대를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독설적이고 날카로운 말로 그를 야유하는 일들을 자주 본다. 우리의 말은 거칠고 날카로워서 안 된다.

시종일관 온유와 친절을 나타내며 반대자의 말을 반박하거나 그로 더불어 다투지 말자.

아무리 자신이 옳다 해도 상대를 비방하지 않고 감정의 흥분 없이 오로지 객관적인 사실만을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자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지원하러 온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한 말이 생각난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대한민국 이제 선거철이 도래했다. 국민들은 출마한 분들의 입으로 토해내는 말을 귀담아 들어 보아야 한다. 상대방 출마자와 어떤 논쟁을 하는지 말이다. 아름다운 대화를 하는지 네가티브 공세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지 경청하시는데 시간을 할애하시면 어떠할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위이다.

독자투고

봄날 운전자 안전 위협하는 복병 춘곤증

어느덧 만물이 생동하는 4월이다. 요즘 산천에는 봄기운이 완연하다. 봄이 되면서 가족단위로 봄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들녘으로 나서는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됐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봄은 춘곤증이 몰려오는 계절이라는 것이다. 겨울철에 비해 기온이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운전 시 스트레스가 오기 딱 좋은 조건이다.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전은 봄

이 되면서 겪는 신체변화의 한 현상이나 여기에 따뜻한 기온과 평탄한 도로, 조용한 자동차의 진동은 졸음을 부추긴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지체 구간에서는 그야말로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진다. 운전 중에 춘곤증이 나타나면 주의집중이 안 되고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중앙선 침범이나 도로 이탈 등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 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20%가량이 졸음운전에 기인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시속 100km로 운전하던 중 1초만 졸아도 무려 약 28m를 졸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고 하니 졸음운전을 가볍게만 볼게 아닌 듯 싶다.

졸음운전이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순간의 졸음운전이 자칫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한편 운행시에는 2시간에 1회 정도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좋다. 그

래도 운전 중 졸음이 몰려올 때는 잠시 차를 정차해 두고 토막잠을 청하거나 이도 여의치 않다면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전 창문을 약간 열어두고 운행하면서 종종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를 시키는 한편 껌이나 캔디를 먹으며 잠을 쫓아야 한다.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목은동이나 허리 운동 등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졸음운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봄날 장거리 운전시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졸음운전이라는 복병이 있음을 잊지 말자.

/김덕형·장성경경찰서 정보보안과

스쿨존! 아이들의 하룻길을 지켜주세요

초등학교 앞 오후 3시, 교문에서 나온 한 아이가 났다 된다. 경찰관으로 교통사고 예방근무를 하다가 아이들을 보면 왠지 들떴던 유년시절 하룻길들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들뜬 기분이 자칫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를 통계는 확인시켜 준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전남에서 발

생한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의 월별 발생건수는 5월이 가장 많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하교시간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의 사고는 전체사고의 38%로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기록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스쿨존 내 제한속

도인 30km를 준수해야 한다. 30km는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발견하고 급제거 했을 때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속도이다. 스쿨존에서의 주정차 또한 금지다. 주정차 차량은 신장이 크지 않은 아이들을 가려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호자들은 아이들에게 방어보행 3원칙인 '서다, 보다, 건다'를 알려주어야 한다. '서다, 보다, 건다' 캠페인은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위

험하게 도로를 횡단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 경찰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원인 분석,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법규위반 집중단속, 학교 주변에서 홍보활동 등에 힘쓰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음이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운전자, 보호자, 그리고 경찰까지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백기순·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

그래픽 뉴스

허위 입원·사고 조작...작년 보험사기 7천300억 '역대 최고'

A 병원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 고가의 진료비를 총당할 수 있도록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또 허위로 도수치료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비의료인 운동치료사를 고용한 뒤 도수치료를 시행해 7억4천만원을 편취했다.

이 병원은 재활치료를 받는 운동선수들이 합숙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며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A병원처럼 보험사기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만 7천302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보다 1.6%(117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적발 인원은 총 8만3천535명으로 전년보다 523명(0.6%)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허위 입원이나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관련한 사기가 전체의 73.2%(5천345억원)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보험 피해과장도 7.4%(542억원)로 전년 대비 11.7% 늘어 증가세가 가팔랐다.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형태는 12.2%(891억원)로 전년 대비 26.7% 감소했다. 보험 종류별로 구분하면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90.0%(6천574억원)였으며, 생명보험이 10.0%(728억원) 수준이었다.

/연남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1618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정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건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서울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인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